

열악한 광주·전남 사회복지시설 개선 시급

보건복지부 지난해 평가 분석

43곳 중 A등급 24곳 55.8%

전국 평균 65.7%보다 낮아

광주·전남지역 장애인복지관과 정신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평가분석자료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장애인복지관·정신요양시설·노숙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등 43곳 중 55.81%인 24곳은 A등급(90점 이상)을 받았다.

이러 B등급(80~90점 미만)은 34.88%인 15곳이며 C등급(70~80점 미만)과 최하위등급이자 미흡시설인 F등급(60점 미만)은 각각 4.65%인 2곳씩이었다.

평가 항목은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영역이다.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는 노숙인복지시설 7곳 중 6곳(85.71%)이 A등급을 받아 환경 및 운영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나타났다. 이어 ▲정신요양시설 8곳 중 5곳(62.5%) ▲사회복지시설 10곳 중 6곳(60%) ▲장애인복지관 18곳 중 7곳(38.89%) 등의 순이었다.

중간등급과 최하위등급인 C등급(2곳)과 F등급(2곳)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이 유일했다.

문제는 광주·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 A등급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낮다는 점이다. 이는 시설환경 및 운영 재정 및 조직운영 개선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전국 498개 사회복지시설 중 A등급을 받은 시설은 전체의 65.7%인 327곳이다. 반면 D등급 또는 F등급을 받은 미흡시설



광주·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 2곳 중 1곳 이상은 최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평균보다 낮아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내용 중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광주일보 자료사진>

은 3.6%인 18곳이다.

시설 유형별로 장애인복지관의 79.7%(145개)가 A등급을 받아 운영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요양시설은 74.6%(44개), 사회복지시설은 52.3%(115개), 노숙인복지시설은 62.2%(22개)가 A등급을 받았다.

평가항목별로 시설 및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영역에서 75% 이상의 시설이 A등급을 받아 다른 영역에 비해 높았지만 재정 및 조직운영 분야는 44.8%의 시설이 A등급을 받아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개별시설에 통보하여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상위

우수시설 및 종전 평가대비 개선 정도가 큰 시설에 대해서 정부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11개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수행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북구, 개그맨 이홍렬 초청 희망아카데미

내일 청사 3층 회의실

광주시 북구는 오는 19일 청사 3층 회의실에서 개그맨 이홍렬 씨의 ‘웃음과 긍정의 삶’이라는 주제로 올해 첫 번째 희망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홍렬씨는 코미디언과 MC로 활동하면서 얻은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웃음이 줄 수 있는 긍정적 마인드, 웃음이 주변인의 분위기에 미치는 효과 등을 재미 있는 입담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카데미 강좌를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강좌를 시작으로 다음달 15일엔 이영권 세계화전략연구소장의 ‘평

생 든 걱정 없이 사는 법’을, 5월 14일에는 김용규 여우술대표의 ‘술에서 배우는 인문학’을 주제로 각각 특강이 진행된다.

하반기인 9월 17일엔 윤영미 아나운서의 ‘일하는 여성이 아름답다’가, 10월 15일엔 송하성 경기대 교수의 ‘송가네 공부법’이 각각 진행되며 역술인 서대원씨는 오는 11월 19일 ‘시간을 통하다’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지난 2007년 경제아카데미로 시작된 희망아카데미는 8년간 총 60회를 개최하면서 북구의 대표적인 교양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

하면서 다양한 강연을 통해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동구 공직자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 앞장

간부 공무원 순찰대 활동

야간 방범활동·민원 수렴

광주시 동구 간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동반 순찰대의 활동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동(洞) 주민센터 자율방범대 등으로 구성된 동반 순찰대는 지난 2013년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조성됐다.

이후 동반 순찰대는 담당 취약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청소년 선도·범죄 예방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동반 순찰대는 야간 방범활동을 하면서 지역민들의 생생한 민원 등을 수렴하고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범죄예방활동은 물론 주민과 소통행정을 동시에 펼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엔 임영일 동구청장 권한대행과 김홍균 동부경찰서장이 동반 순찰대에 동참,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동구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구청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동 순회 찾아가는 이동구청의 날’을 운영할 예정인데, 동반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현장밀착형 소통행정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동구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궁금하시죠? ...광주·전남 31일 간담회

사적 간병 문제 해소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음달 14일까지 5회에 걸쳐 공동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전국 5대 권역별 병원장 정책간담회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건강보험 수가보상 방식으로 전환 추진됨에 따라 전국 지역병원장

을 대상(서울 및 삼급종합병원 제외)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수가보상·참여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향후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5대 권역 간담회 일정은 부산·경남(3월 17일), 광주·전라(3월 31일), 대전·충청(4월 7일), 대구·경북(4월 8일), 경인·강원(4월 14일) 등이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은 국민 의료

비 부담 경감을 위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사적 간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큰 부담과 입원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 간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추진된 시범사업을 평가한 결과, ▲간호서비스 질향상에 대한 환자만족도 ▲욕창 및 낙상 감소 등 간호성과도 ▲인력 확대배치로 팀단위의 간호서비스 제공 여건 증진 등으로 간호인력 직무만족도 등

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간호서비스는 현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오는 2017년까지 지방중소병원 중심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병원이 앞장서 건강보험 시범사업 원년에 반드시 참여해 가계부담 경감 및 입원서비스 질 제고라는 시대적 소명에 함께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내 아이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 우리집 안심 지킴이

홈CCTV 헬로캠 탄생!



월 7,000원 (부가세 포함 7,700원)

※출시기념 혜택 지금 가입하시면 16GB SD카드 증정(1,000대 한정)
- 3년 약정, 인터넷 결합 기준 / 무선공유기 임대료 별도



“학교 잘 다녀왔어?”



“숙제는 잘 하고 있지?”



“오늘 간식은 뭐 먹었?”

www.cjhellovision.com